

완도군,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일석삼조' 효과

연안여객선터미널 도로변·농공단지 사거리 2개소 조성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가로 경관 개선·주민 쉼터 제공

완도군에서 추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물론 가로 경관 개선, 주민 쉼터 제공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청정바다수도에 걸맞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관계 기관에 해당 사업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도로변과 농공단지 사거리 등 2개소에 숲을 조성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은 24시간 항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 및 화물차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이용 차량의 경우 연간 300만대에 육박하고 특히 화물차 비중이 매우 높다.

화물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등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해륙풍과 편서풍 등으로 인근 주거 지역에 유입될 위험이 있어 미세먼지 차단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지역 난대 수종인 완도호랑기시나무, 황칠나무, 겨울철 동해에 강한 동청목을 식재하여 약 1km에 달하는 숲을 조성했다.

군은 숲이 주민 산책 코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층부에는 홍가시나무와 황금사철을 심었다.

주민 A씨는 "운동을 하려고 완도타워를 오를 때 여객선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좁혀진 느낌이 들었는데, 숲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산책 코스가 생겨 매일 오고 싶어졌다"라고 말했다.

농공단지 사거리의 숲은 연안여객선터미널 숲과 달리 공원 형태로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형 나무 위주로 식재를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은 전남도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국지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숲을 조



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녹색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47그루가 모이면 경우차 1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

1.68kg을 흡수할 수 있으며, 숲 조성 시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미남축제 일주일 연기

11월 11일부터 13일 개최

해남군은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국가대기공간이 11월 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4일부터 열릴 예정인 해남미남(味南)축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11월 11~13일 열리게 된다.

특히 국가적인 추도 분위기를 고려해 축제 프로그램 중 대규모 축하공연 등은 취소하고, 전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주말동안 긴급대책회의를 거듭한 끝에 국가대기공간이 포함된 축제 개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연기 및 축소 개최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해남 대표축제로서 해남미남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축제 취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은 축제 기간동안 안전 점검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안전관리 요원을 확충하고 부서별 배치 임무에 대한 자체 현장 점검도 다시한번 실시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현관 군수는 "3년만의 해남 대표축제를 기다려온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이번 이태원 사고를 교훈삼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 용두농협, 이마트에

햇 찹쌀 첫 출하...280톤

장흥군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은 이마트와 장흥 햇 찹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31일 초도물량 280톤을 출하했다.

이날 출하식에는 장흥군 조석훈 부군수, 문정걸 농산과장, 박기승 농협 장흥군지부 지부장, 용두농협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찹쌀은 이마트 창립 29주년 행사 상품으로 용두농협이 장흥군 장동·장평면 435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동진 찹쌀 단일품종 480톤, 10억원 물량이다.

용두농협 백찬인 조합장은 "이마트 창립 행사를 맞아 찹쌀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찹쌀을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장흥 찹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마트에 납품하는 찹쌀은 장흥군 대표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 장흥 찹쌀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용두농협은 '산들해랑' 햇 찹쌀은 11월 3일부터 17일간 전국 이마트 140개 매장에서 4kg 포장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다산·영랑 동상, 새 보금자리 찾는다

강진 관문으로의 상징성 사라져, 주민 의견 수렴 후 이전 계획

강진군은 지난달 27일 시문화과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다산·영랑 동상 이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과거 강진으로 들어서는 관문에 건립되어 상징적 역할을 했던 다산 동상과 영랑 동상이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서 다산 정약용 선생과 영랑 김윤식 시인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다산·영랑 동상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추진위의 목적과 향후 계획 수립 등이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간담회 결과 추진위원장으로 김승식(前

영랑기념사업회장) 씨가 추대되었으며, 현재 다산·영랑 동상의 위치가 적절치 않으므로 이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는 향후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다산·영랑 동상을 이전할 계획이다.

김승식 추진위원장은 "동상 이전은 강진군 역사의 맥을 잇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차후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산·영랑 동상은 1979년 주요 인사 32명이 참여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산상은 구 다산로터리(현재 강진의료원 근처), 영랑상은 영랑로터리 (현재 강진소방서 앞 영랑공원)에 건립됐다.

동상이 세워질 당시 영랑 로터리와 다산 로터리는 강진읍으로 통하는 동쪽과 서쪽의 유일한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으나 다산상은 2009년 다산 로터리 자리에 강진의료원이 건립되면서 호수공원으로 이전됐고, 영랑상이 위치한 영랑 로터리도 그 일대 교통구조가 바뀌며 상징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이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김희수 진도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이 지난달 31일(월) 오전 진도군

진도군, 반부패 청렴문화 캠페인... '청렴 진도' 다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등 공직자 준수사항 홍보

청사 1층 로비에서 청렴떡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 물도 함께 배부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롯 반부패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열렸다.

진도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과 청렴방송,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운영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신뢰받는 진도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외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